

Letter from Blacksburg

1996년 여름부터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다녔다.



2022년 전시회 작품 앞에서

27년 동안 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셈이다 (중간에 1년의 공백이 있다. 그 이유는 중반부에 적었다). 당시 남편이 버지니아텍 전자 공학 박사과정에 들어 가게 되어, 블랙스버그 폭스리지아파트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도 남들처럼 박사과정을 마치면 직장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레드포드대학의 디자인 석사과정에서 입학해서 육아와, 유학생 와이프, 학생으로서의 고단한 생활을 해 나갔다. 딸은 2살이었다. 주중에는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했고, 주말엔 다비다회 (부녀회)에 속해서 친교 음식 준비를 도왔다.

기억에 남는 일 몇가지를 떠올려보면, 폭스리지 아파트 건물 한채에 불이 났던 일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그 아파트 건물의 3층에서 불길이 시작되었고, 진화 과정에서 1, 2층은 물벼락을 맞은 것 같이 되었다. 3층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가정이 살고 있었고, 그 아래층 유닛들 중 하나에는,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한인 가정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같은 건물에 거주중인 미국인 가정도 화재의 피해를 입었다. 한인 자매들은 눈물을 닦으며 소방차의 진화 작업을 지켜 보고 있었고, 스쿨 버스를 타고 막 돌아온 킵스 엘레멘트리 어린이들도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한인 가정들이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았기에 어려움이 컸었다. 다음날부터 교회 자매들은 화재 현장의 가구, 전자 기기, 그릇등의 그을음을 닦고 (그을음이 그렇게 모든 살림을 뒤덮는 줄은 몰랐다) 또한 그룹의 자매들은 식사당번을 번갈아가며 맡았고, 우리집은 임시 탁아소가 되었었다.

말기 위암에 걸렸던 2명의 자매들 회복을 위해 매일 저녁, 집마다 돌아가며 하던 저녁 기도모임이 이어져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번은 심한 폭설에도, 운전이 서툰 몇몇자매들이 어두운 새벽에 목숨 걸고 차를 몰고 와서 함께 기도한 적도 있었다. 그 새벽기도모임은 코로나 이전까지, 꽤 오랜 기간동안 계속 되었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 블랙스버그 생활에 익숙해지는가 했는데, 매년 동고동락했던 교회 식구들이 학위를 마치고 떠날 적마다 교회 친교실은 울음바다가 되고, 나도 울고 나면 힘이 빠져 집에 돌아와 밥 할 힘도 남지 않았다. 혈육같은 형제 자매를 보내는 슬픔도 컸지만, 그들이 맡았던 교회 역할들을 떠맡게 되는 점 역시 힘겨웠다. 그로 인해 자격없는 내가 주일학교 교장도 3년 가량 했었다.

교회 봉사과 책임이 커가는 동안, 남편은 여전히 불신자의 삶을 살며, 때때로 아이들이 교회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는 했다. 그래도 순모임에는 늘 참석했었다. 정작 나 자신은 신앙없는 남편과 교회에서의 역할사이에서 지쳐 가고 있었다.

2008년에는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미국인들의 경건을 배우고 싶고, 매년 정든 친구를 보내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지인의 소개로 미국인 교회에 다니기 시작 했다. 그 해 여름 한국 방문중, 나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국에서 8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인 교회를 떠났음에도 우리 가정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일련의 고난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 19:30)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랜 기간 기도했었으나 남편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작년 2월의 일이다. 한국에서 친정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시차를 극복해 갈 무렵이었다. 룯 같기도, 나오미 같기도 한 심정이 이런 것일까 싶었다. 읊 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지난 2월 12일이 교회창립 40주년이었다. 최장수(?) 교인인 탓에 내가 기념행사를 맡겠다고 했고, 지난 사진들을 모아 PPT 영상을 만들어 나누었다. 글을 마치며 되돌아보니 고난의 기록만 나열했다. 딸 한나가 읽으면 너무 감정적으로 썼다고 지적했을 것 같다. 아직은 쿨하게 균형잡힌 글을 쓰기가 어렵다. 삶을 나누며 치열하게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고, 사랑과 지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모신 것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응답이었다. 사이비 종교의 유혹도, 교회안의 심한 분쟁이나 갈등이 없었던 것도 감사하다. 매주 모국어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영혼의 해갈이 되었다. 나의 신앙은, 과연 교회에 출석한 시간만큼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라는 말씀처럼 항암치료 과정을 통과하며, 이후부터는 정련된 순금처럼 살리려 했으나, 내 신앙의 순도는 아직도 높지 않다. 이렇게 금새 노년을 바라볼 줄은 몰랐다. 이 것처럼 대충 크리스찬 행세를 하며 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을 꺾등으로 흘리지 말고 성숙한 진지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가고 싶다. 요즘 QT로 로마서를 읽으며 드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상처입은 곰이 동굴에 숨어 아물기를 기다리듯, 나는 작년에 겪은 충격들을 쓰다듬고 있다. 왜 주님은 남편 구원을 위한 나의 오랜 기도에 이렇게 답하셨는지, 의문과 혼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의문과 동시에, 빛과 소금의 다짐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것이다. 동굴에서 나와 달리다 보면 그것들이 훌훌 털어져 있을 것 같다.

2023년 6월, 정원정

헌금/재정지원

<https://kbcbs.us/paypal-헌금>

(한국에서는 Paypal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헌금을 하실려면 계좌 이체를 해야합니다. 교회 계좌 정보가 필요하시면

kbcbs.treasurer@g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한인 교회 Mailing address:

PO Box 10185, Blacksburg, VA 24062

미국 교회 주소:

550 N. Main Street, Blacksburg, VA 24060

기도제목

- KOSTA Conference를 위해서
- 이번 여름에 블랙스버그를 떠나는 지체와 오는 지체를 위해서
- 몸이 아픈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Upcoming Events

7/3-6 : KOSTA Conference (일리노이)

8/21 : Virginia Tech, Radford 개강